

새롭게 뛴다… 광주 축구·야구, 해외 전훈서 시즌 청사진

광주FC·전남드래곤즈 태국행
체력 향상·전술 가다듬기 숙제
KIA, 日 가고시마·오키나와로
명예회복 위한 지속 훈련 예고

태국과 일본에서 2026시즌 청사진이 그려진다. 새해를 맞는 프로스포츠 구단들이 해외 전지훈련을 통해 기지개를 켜고 있다. K리그 팀들이 태국을 중심으로 새 시즌 설계를 하고, KBO리그의 많은 팀들은 변함없이 일본을 워밍업 무대로 삼았다.

광주FC와 KIA 타이거즈도 태국과 일본에서 '반전의 시즌'을 준비하게 된다.

광주는 지난 4년 팀을 이끌었던 이정호 감독의 이적에 따라 '이정규 체제'로 정비하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사령탑 변화 속 상반기 선수 등록 금지 징계 악재로 빠듯한 살림을 해야 한다.

'舫계 없는' 도전을 예고한 이정규 감독이 먼저 선수단을 이끌고 태국에서 시즌 준비에 나섰다.

광주는 지난 5일 인천공항을 통해 1차 동계 전지훈련지인 태국 후아힌으로 떠났다. 광주는 26일까지 후아힌에서 1차 동계 훈련을 진행한 뒤 남해로 장소를 옮겨 2월 15일까지 2차 전지훈련을 통해 전력 구성을 마무리하게 된다.

후아힌에서는 체력 향상과 전술 가다듬기가 우선 숙제다.

광주의 공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비' 강화도 진행된다. 이정규 감독은 지난 5일 감독 취임 기자회견에서 "공격적인 수비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수비를 강조했다.



광주FC 선수단이 지난 5일 태국 후아힌으로 동계훈련을 떠나기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경쟁'도 시작된다. 전반기 선수 등록 금지 징계가 구단에는 위기지만 선수들에게는 기회다. 기회를 잡기 위한 선수들이 새 사령탑 앞에서 어필 무대를 이어갈 전망이다.

K리그2에서 승격에 도전하는 전남드래곤즈도 태국을 준비 무대로 삼았다.

'박동혁호'로 새로 출발하는 전남은 광양에서 몸풀기를 이어간 뒤 10일 태국 방콕으로 이동해 2차 동계훈련을 진행한다.

이번호호 이끄는 KIA의 2026시즌 여정은 22일 시작된다.

지난해 미국 아바인에 KBO 구단 처음으로 스프링캠프를 꾸렸던 KIA는 올 시즌에는 일본으로 시선을 돌렸다.

가고시마현의 섬 아마미가 KIA의 1차 캠프지다. 아마미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KIA는 지난 시즌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구슬땀을 흘리게 된다.

KIA의 2차 캠프가 진행되는 오키나와는 비행기로 1시간 거리. 하지만 가는 길이 쉽지는 않다.

한국에서 아마미로 가는 직항 노선이 없어서 KIA는 '1박 2일'의 여정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22일 KIA 선수단은 김포 공항을 통해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이동한다. 선수단은 도쿄에서 1박을 한 뒤 23일 아마미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된다.

이후 24일부터 KIA의 본격적인 스프링캠프가 시작된다. '1박 2일'의 여정이지만 미국과 달리 이

동 시간이 짧고, 시차가 없다는 점에서 선수들은 최상의 컨디션에서 바로 경쟁을 시작하게 된다. 이후 KIA는 오키나와에서 2월 23일부터 2차 캠프를 진행한다. 연습경기 일정이 진행되는 등 오키나와 캠프는 실전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디펜딩 챔피언'으로 연패의 꿈을 키웠던 지난해와 달리 8위까지 추락한 KIA는 이번 캠프에서는 '명예회복'을 위해 칼을 같은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리그, 29개 구단 체제…2부서 최대 4팀 승격

올해 달라지는 K리그…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 폐지·외국인 골키퍼 허용

2026시즌 K리그가 새로운 변화를 맞는다. 29개 구단 체제로 경쟁이 벌어지고 외국인 골키퍼도 다시 만날 수 있게 된다.

올 시즌 K리그2에 용인FC, 파주 프린티어 FC가 도전장을 내민다. 3개 팀이 새로 가세하면서 K리그2는 17개 구단 체제로 운영된다. K리그1 12개 팀까지 더하면 29개 구단으로 K리그가 움직인다.

K리그2는 흘수팀 체제에 따라 휴식 라운드를 보내는 팀이 나오며, 팀별 32경기씩 총 272경기가 진행된다.

승강방식에도 변화가 있다.

2026시즌을 끝으로 김천상무의 연고 협약이 만료되고, 2027시즌부터 K리그1 팀이 14개로 늘어나면서 승강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

김천상무의 올 시즌 순위에 따라 승강 방식이 달라진다. 김천상무가 K리그1 최하위를 기록하면 김천상무가 강등되고, 추가 강등은 없다.

이럴 경우 K리그2에서 1·2위 팀이 자동 승격된다. 또 K리그2 3·6위 팀이 플레이오프를 진행해 최종 승자가 승격 자격을 얻는다.

김천상무가 최하위가 아닐 때 승강플레이오프가 진행된다. 우선 김천상무는 자동 강등되고, K리그1 최하위 팀은 승강플레이오프를 통해 생존을

노려야 한다.

K리그2에서는 1·2위팀이 자동 승격되고, 3·6위 팀 간 플레이오프를 통해 최종 승자가 K리그1으로 향한다. 승격 결정전에서 패한 팀에게 '패자부활전'이 있다. 패배팀은 K리그1 최하위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 승격 티켓을 노리게 된다. K리그2팀이 승자가 될 경우 최대 4개 팀이 승격하게 된다.

외국인 선수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가 폐지되면서 각 구단은 인원 제한 없이 외국인 선수를 보유할 수 있다. 단, 엔트리 등록 및 출전은 K리그1 5명, K리그2 4명이다.

또 외국인 골키퍼 등록 금지 규정이 없어지면서 K리그에 다시 외국인 골키퍼가 등장할 전망이다.

K리그2 출전선수 명단은 기존 18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난다. 외국인 선수 등록 인원 확대에 따라 국내 선수의 출전 기회를 보장하고, 교체 선수 활용 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K리그1은 2024년 시즌부터 20인의 출전선수 명단을 운영하고 있다.

U22 선수 의무 출전 제도는 완화된다. 이에 따라 K리그1은 U22 선수 출전 여부와 상관없이 5명을 교체 멤버로 활용할 수 있다. 대신 U22 선수가 20인 엔트리에 2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규정은

유지된다.

U22선수가 1명만 엔트리에 포함될 경우 출전 선수 명단은 19명으로 제한된다. U22 선수가 포함되지 않으면 18명으로 출전선수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K리그2는 ▲U22 선수가 출전하지 않으면 3명 교체 ▲U22 선수가 1명 선발 출전하고 추가로 교체 출전이 없는 경우 4명 교체 ▲U22 선수가 선발 출전하지 않고 교체로 2명 이상 출전하는 경우 4명 교체 ▲U22 선수가 2명 이상 선발 출전하거나 1명 선발 출전 후 1명 이상 교체 출전할 경우 5명을 교체할 수 있다.

또 K리그 전 구단은 의무적으로 태크니컬 디렉터를 보유해야 한다. 이는 구단 고유의 축구 정체성을 확립하고, 장기 기술발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선수 표준 계약서의 '구단 임금 체불 시 선수 계약 해지 조항' 개정도 이뤄진다.

기존에는 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봉을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선수가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연봉 2개월 이상 미지급 시 선수가 구단에 채무 불이행을 통지하고 15일 동안 시정할 기회를 부여한다. 15일 후에도 구단의 시정이 없으면 선수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새해 첫 대회 혼쭐난 '세계 1위'

안세영, 배드민턴 말레이시아오픈 32강전 75분 혈투 끝 2-1 승리



안세영이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오픈 32강에서 캐나다의 미셸 리를 상대로 1시간 15분의 혈투 끝에 승리를 거뒀다. 지난 12월 중국 헝저우에서 열린 월드 투어 파이널에서 경기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자 축구 전설' 지소연, 국내 복귀

미국 생활 마치고 수원FC 유니폼…“챔피언 도전할 것”

한국 여자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지소연(34·사진)이 3년 만에 수원FC 위민 유니폼을 입고 국내 WK리그에 복귀한다.

수원FC 위민 구단은 2022~2023년 뛰었던 지

소연을 다시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지소연은 A매치 171경기에 출전해 74골을 넣어 한국 선수 역대 최다 출전과 득점 모두 1위에 올라 있는 최고 스트리더다.

2011년 일본 아이치 고베 레오네사에서 프로 테리언 지소연은 2014년 월드컵에 입단, 한국 여자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여자슈퍼리그(WSL)에 진출해 2022년까지 뛰며 유럽 무대에서도 맹활약 했다.

2021-2022시즌을 끝으로 월드컵과 동행을 마무리한 그는 수원FC 위민의 부름을 받아 WK리그에서도 뛰었다.

2023시즌까지 수원FC에서 보낸 뒤엔 2024년

미국여자프로축구(NWSL)에도 도전해 시애틀



수원FC 위민은 "경험과 리더십, 실력까지 모두 갖춘 지소연의 복귀가 팀에 확실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삼성생명)이 진땀 나는 승부 끝에 가까스로 새해 첫 승을 거뒀다.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오픈 32강전에서 1시간 15분의 혈투 끝에 캐나다의 미셸 리를 2-1(19-21 21-16 21-18)로 꺾었다.

세계 랭킹 12위 리를 상대로 통산 8전 전승을 기록 중이던 안세영은 이날 평소답지 않은 몸놀림으로 불안하게 출발했다.

첫 게임부터 연이은 실책으로 주도권을 내준 안세영은 두 차례 간신히 역전에 성공했으나, 결국 추격을 뛰어지지 못한 채 19-21로 첫 세트를 내줬다.

2게임 초반에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안세영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듯 무릎을 짚고 숨을 몰아쉬며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세계 1위의 저력을 위기 상황에서 빛냈다. 상대에게 연속 득점을 허용하며 6-11로 뒤진 채 인터벌(휴식 시간)을 맞이한 안세영은 경기 개 후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했다.

컨디션을 회복한 듯 순식간에 7점을 몰아치며 전세를 뒤집는 저력을 과시했고, 4번의 동점을 반복한 끝에 16-16에서 5연속 득점으로 이겨 승부

를 원점으로 돌렸다.

3게임에서도 치열한 시소게임을 반복한 안세영은 11-10으로 앞선 채 인터벌을 맞았다.

마지막까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접전을 펼쳤지만, 뒷심은 안세영이 더 강했다.

14-16으로 밀리던 상황에서 5연속 득점으로 19-16 리드를 잡았고, 리에게 2점을 허용했으나, 곧바로 마지막 2점을 내리며 천신만고 끝에 승리를 거뒀다.

2024년과 2025년 말레이시아 오픈 정상에 올랐던 안세영은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경우 '대회 3연패'라는 금지탑을 쌓게 된다.

안세영은 지난해 단일 시즌 역대 최다승 타이기록(11승), 단식 선수 역대 최고 승률(94.8%), 그리고 역대 최고 누적 상금액(100만 3175달러)을 모두 경신하며 배드민턴 새 역사를 썼다.

말레이시아오픈 종료 후 13일부터 인도 오른다. 출전까지 이미 확정된 안세영은 자신이 세운 대기록을 뛰어넘기 위해 다시 한번 신발 끈을 조여 매고 있다.

안세영은 16강에서 2017년 세계선수권 금메달리스트 일본의 노조미 오쿠하라와 맞는다.

/연합뉴스